익산시립무용단 30주년 공연 '선물' 호응

티켓 예매 당일 전석 매진… 전통춤 · 사물놀이 · 아날로그 감성 연출로 관객 1000여명 뜨거운 환호

익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최석열)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선보인 제49회 정기공연 '선물(膳物)'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저녁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에 관객 1,000여 명이 찾았으며, 공연 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고 11일 밝혔다. 공연 종료 후에는 커튼콜 요청이 이어지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티켓 예매 시작 당일 1인 최대 4매로 제한된 예매 수량이 빠르게 소진되며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공연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공연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30년간 익산시립무용단에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4부 구성으로 약 90분 동안 진행됐다.

1부 '윤음(綸音)'에서는 훈령무와 태평천무로 힘차게 막을 열었고, 2부 '풍류(風流)'는 한량무와 월하정인으로 전통춤의 깊은 멋을 선보였다.

이어 3부 '염원(念願)'에서는 탈춤과 강강술래로 공동체의 신명과 정서를 풀어냈으며, 4부 '선물(膳物)'은 다채로운 전통춤이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울러 익산시립풍물단(예술감독 김익주)이 함께 참여해 사물놀이 반주로 무대의 흥과 깊이를 더했다. 전장막과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한 연출 또한 전통춤 특유의 정취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익산시립무용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선보인 제49회 정기공연 '선물(膳物)'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한 시민은 "무료 공연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며 "매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시립무용단은 이번 공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석열 예술감독은 "창단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뜨거운 반응으로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중국 염성시 공연단과 문화 교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춘향제 방문해 식전 공연 선보여

남원시는 중국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염성시 대표단과 공연단이 춘향제를 방문해 지난 5월 1일 개최된 개막식 식전 공연을 선보이며 양 도시간 문화교류와 우호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996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교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도시는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장샤오룽 염성시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과 장상즈 엔청시 가무극 유한회사 원장 보좌관을 포함한 공연단 11명이 함께해 자매 도시간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식전 공연에서는 학록동춘 무용을 시작으로 성악, 기악독주, 전통무용인 쌍무무용, 남녀 이중창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축배를 들자 친구야"는 서로의 우정과 화합,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깊은 감동을 전했다.

또한, 남원시도 오는 5월 19일 열리는 남원-염성시 30주년 기념행사에 염성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양 도시 간 우호 협력과 문화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청년 2027' 작가 공개 모집

전북도립미술관, 유망 신진 작가 발굴 위해 21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전북 지역 청년 미술가를 발굴하고 조명하기 위해 2026년 5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북청년 2027'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전북 지역문화 발전과 신진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내외 미술계 활동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청년은 2015년 첫 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역량있는 동시대 청년 미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연례 기획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내년에는 13회차를 맞이한다.

선정된 작가는 신작 제작 지원 및 비평가 1:1 매칭, 그리고 전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2인의 청년 미술가를 모집하며, 시각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개인전 3회 이상 개최한 자, △전북 작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작가이다. 전북 작가 기준은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작가 선정 과정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 행정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2차 면접 심사(프레젠테이션 발표), 3차 현장 심사(작품 실견 및 작업실 확인)의 세 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심사는 동시대성 및 독창성, 창작 역량, 활동 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모 신청은 11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전자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된 세부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양식은 전북도립미술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063-290-6878)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국립창극단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 16일 공연

군산예술의전당이 2026년 기획공연으로 국립창극단의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를 오는 16일 오후 3시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극장과 함께하는 '2026 국립극장 지역 문화거점 공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시민들이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토선생 용궁가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극 콘서트로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겸 단장 유은선이 연출과 극본을 맡았으며, 작창 한승석, 음악감독 최영훈, 안무 김주연 등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참여해 작품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은 5월 16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석 5천 원이다. 군산시 관내 65세 이상 거주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람은 초등학생 이상 가능하며, 예매는 티켓링크와 커피브라운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김만호 기자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정규 공예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공예문화 거점인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를 중심으로 2026 상반기 정규 공예 프로그램(OPEN CRAFT)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에서 공예를 경험하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퇴근 이후 참여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예교육으로 구성됐다.

2026년 상반기 OPEN CRAFT 프로그램은 총 7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통회화 및 공예를 비롯해 한지·천연염색 등 전통 기반 생활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목공예·도자공예·소잉 공예를 통해 실용적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라탄공예와 캘리그라피 등 감성형 라이프스타일 공예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수강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참여는 유료로 진행되며, 완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분야별 모집 인원은 상이하며, 선착순 접수로 모집이 완료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개최

남원시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을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과 16일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청아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 공모사업 2026 찾아가는 국립극장 선정작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 어린이·가족 대상 국악 기반 융복합 음악극이며, 신화와 이야기, 음악을 결합한 흥미로운 구성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고, 가족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우리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작품은 노래하는 아이 '선율이'가 전설 속 거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과 객원배우 등 총 14명이 출연하며 공연시간은 약 60분으로, 관람은 36개월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이며, 성인은 5천원이다.

/남원=김기두 기자